

골프



“아우야, 칩 샷은 이렇게” 최경주(가운데)와 노승열이 PGA 챔피언십 연습라운드가 열린 12일(한국시간) 연습 그린 주변에서 칩 샷을 하고 있다. (클레미 위스콘신 주) 연합뉴스

만형 최경주-막내 노승열 샷 점검 동반 연습라운드

한국 골프의 간판 최경주(40)와 기대주 노승열(19)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출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최경주는 12일(한국시간) PGA 챔피언십을 앞두고 후배 노승열과 함께 연습라운드를 하며 샷 점검을 끝냈다. “메이저 대회 제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컨디션도 매우 좋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예상한다”며 최경주는 자신감을 보였다.

코스 점검을 마친 최경주는 “2004년 대회의 경우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심하지 않아 부담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린이 딱딱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어느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연습라운드를 펼친 노승열에 대해서는 “한국의 젊은 선수 중 유망주로서, 샷 감각도 좋고, 도전정신도 강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리라 본다”고 격려했다.

대회 조직위의 특별초청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노승열은 “최경주 선배가 이를 연습 연습게임을 함께 하면서 그 동안 공급했던 사항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할 기회도 얻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 초청 받은 건 노승열이 처음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제주 라온GC 출신원 경품이 3억짜리 빌라

제주 라온골프클럽은 내년 8월14일 까지 1년 동안 출신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동안 출신원을 기록한 고객에게 9월 오픈 예정인 라온프라이빗 타운 빌라 1채를 준다. 분양가 기준 3억 6000만원으로 역대 골프장 출신원 경품 중 최고가다. 출신원 이벤트는 라온골프클럽 레이프 코스 6번 홀에서 진행된다. 출신원 달성자가 여러 명 나올 경우 공동 소유로 균등 배분한다. (064)79 5-1000



슬럼프 끝?...우즈가 웃었다 그동안 스캔들과 슬럼프로 웃을 날이 없던 타이거 우즈가 12일(한국시간) PGA챔피언십 연습라운드에서 매 홀 밝은 표정으로 샷 감각을 다졌다. 디펜딩 챔피언 양용은과 함께 1,2라운드에 나서는 우즈가 활짝 웃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일까? (클레미 위스콘신 주) 로이터연합뉴스



한번 해본 우승 두번은 못하랴

양용은 PGA 챔피언십 출사표 “우승경험 살려 리듬감 찾겠다” 까다로운 코스 실수 줄이면 V

양용은(38)이 아시아 남자골퍼 최초의 미 PGA 투어 메이저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용은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 주 풀러의 위슬링 스트레이츠 골프장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의 타이틀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작년 PGA 챔피언십 우승 경험을 살려 리듬감과 자신감을 되찾으면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회 코스가 작년에 우승했던 미네소타 주 태스카의 헤일즐린 내셔널골프장 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러프가 길고, 벙커도 많은 만큼 차분하게 경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위슬링 스트레이츠 코스는 총 전장 7507야드로, 올해 개최된 메이저 대회 중 가장 길다. 957개의 벙커가 페어웨이 곳곳에 위치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든다.

타이거 우즈와의 재대결에 대해서는 “작



양용은이 12일(한국시간) PGA 챔피언십 전년도 우승자의 자격으로 미디어 센터에서 참가 선수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클레미 위스콘신 주) 연합뉴스

년 프레지던트컵 이후 세 번째로 같이 경기를 하는데 우즈와 함께 라운드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 작년에 우즈를 꺾고 우승을 했던 만큼 올해는 정신적인 중압감이 덜하다. 마음이 보다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끝난 상태”라며 나름대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용은은 이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주

WGC 브리즈톤 인비테이셔널이 끝난 직후 곧바로 풀러로 이동했다. 최근 대회에서 임팩트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양용은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양용은은 주요 참가선수 인터뷰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으로 맨 마지막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은 양용은보다 하루 앞선 11일 기자회견을 끝냈다.

이날 기자회견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전날 열린 ‘챔피언스 디너’ 파티였다. 양용은은 “작년 말 우승자 만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을 계속하다 친구인 가수 이승철 씨와 상의했고, 이승철 씨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부탁하게 됐다. 김 여사께서 호텔 주방장을 보내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승자 만찬의 메뉴를 한식을 대접하는 것은 꿈이나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인데, 현실로 실현이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양용은은 챔피언스 디너에 참석한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등 선수와 관계자 100여 명에게 테디베어(곰인형) 헤드커버와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줬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성기욱 한국골프협회 부회장,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 김동욱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한영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부석부회장(왼쪽부터)이 12일 골프와 관련된 세금 감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장 종과세 완화” 촉구

골프단체 10만명 서명서 공개

한국골프장협회와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골프 관련 주요 단체들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별법 연장과 골프장 종과세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같은 요구에 동의하는 10만 여명의 서명자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골프관련 주요 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용자 지원,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세금 영세율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회원제 골프장에는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 재산세(4%), 종부세(4%), 취득세(10%)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카지노(500 0원)와 경마(920원), 경륜·경정(340원) 등에 비해 개별소비세 비율이 최소 4.2배에서 최대 62배까지 높다. 코스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사업장에 비해 약 20배 무거운 세금을 받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약 4배다. 체육시설의 설치에 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포츠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장에 대해서만 종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해야 하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골프단체들은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조세법 실시로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효과, 2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100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애초 조세특례 시행의 성과가 좋다면 2년 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골프에 종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골프를 즐기는 행위 자체를 고급사치성 오락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는 과거 TV와 냉장고에도 붙었지만 지금은 폐지됐다. 당시엔 사치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2016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고 430만 명이 즐기는 골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또는 인하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남자이야기
이 세상 남자로 태어나서 힘들고 지쳐도 남자는 그 이유 때문에 나오는 눈물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고 할 일은 많습니디. 이제 들려주세요. 참았던 못다한 이야기들...
당신의 열자리에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 060 600 5858

새롭게 태어 납니다.

NICO-BOCO
SPORT SHOES

NICO-BOCO의 상표권은 (주)유승스포츠에 있으며 무단 사용시 상표법에 의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승스포츠 서울특별시 중구 창신동 436-5 청계빌딩 401호 02)745-5061